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한미화 | 출판컬럼니스트

시인에게 있어서 ‘시’란 영혼의 목소리다. ‘시’란 삶을 멈추고 듣는 것이며 그래서 듣는 자 역시 영혼으로 말하게 하며 그때 ‘시’는 상처를 치유하고 깨달음을 주는 치유의 힘을 갖는다.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포기나 망각이 아닌 초월을 권유하는 것이다. 올해 출간된 류시화 시인의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을 읽으면 지나온 생의 감정이 물려와 감정이 복받쳐 올라온다.

〈내 이름은 김삼순〉의 마지막 회에서 소개된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 『모모』의 인기와 더불어 뉴스거리가 됐다. 2005년에 출간된 시집은 방송 전에 이미 20만 부 가량이 판매되었지만 방송 후 매일 4,000~5,000부 정도씩 방송 전보다 두 배 이상 팔려나갔다는 소식이어서, 이를 두고 『모모』와 마찬가지로 PPL광고가 아니냐는 물음 역시 끊이지 않았다. 3월에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시집을 나 역시 진작 샀다. 류시화의 자전시집은 아니다. 헤르만 헤세나 타고르 같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시부터 인도의 신비주의 시인 까비르, 북아메리카 인디언인 체로키 족, 유럽의 인디언으로 불린 켈트족 그리고 인도 켈커타의 마더 테레사 본부 벽에 붙어있는 시처럼 작자미상의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이다.

자작 시집으로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다』와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렇게 겨우 두 권 밖에 없으면서 남의 시를 편집해 시집을 내고 돈을 번다는 세간의 비아냥거림처럼 이번 시집 역시 엮음 시집이다. 그런데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을 사서 혼자 여러 번 “아, 이제 나도 늙은 건가. 류시화의 시집을 읽으며 감읍하다니”하고 중얼거렸다. 류시인에 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많으니 그에 대한 선입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진작 시집들을 ‘정의 없이’ 읽었던 경험도 있었던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을 읽으면서 지나온 생의 감정이 물려와 감정이 복받쳤다.

시인 대신 불인 기획자라는 타이틀

결국 때마침 감정의 흔들림으로 인해 나는 시집이 독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싶어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다. 류시인이 엮은 시집에서 느끼는 감동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은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에 시집이 방송을 타고 화제의 대상이 되자 또 시집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잖이 부담스러웠다. 그렇지 않아도 류 시인에게는 걸 다르고 속 다르다는 평가가 따라 다닌다. 문학평론가 박철화는 한 글에서 “류시화는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다. 오랜 수행을 통해 주어질 깨달음이 그의 생 속에서는 걷는 걸음마다 발끝에 차이는 것이 깨달음이요, 정말로 그의 말대로 깨달음을 얻었다면 명상과 침묵 속에 있어야 할 터인데, 다변(多辯)과 미문(美文)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 반복해서 보여주는 마치 사이버 종교의 설교자나 열치기 도사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워낙 자신의 이름으로 엮고 번역하고 쓴 책이 많은 류시화 시인인지라 출판계에서 그와 같이 작업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들로부터 나오는 시인에 대한 평가도 천차만별이다. 남이 전해준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나 역시 진행하는 출판 무크 『북페덱』에서 기획자 류시화에 관한 글을 실으려고 애쓴 적이 있다. 본업이 기획자가 아닌데 결국은 기획자임네 하는 사람보다 뛰어난 기획자들에 관한 꼭지였다. 거기에 포함된 이들이란 문학평론가 김현, 디자이너 정병규, 과학저술가 김동광, 변산 공동체의 윤구병 선생 등 내로라하는 인물들이었다. 기획도 재밌고, 가까이에서 이들을 지켜 본 사람들이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류시화 시인을 인터뷰하고 글을 써보라는 제의에 모두들 고개를 흔들었다. 문제는 류시화 시인의 이름 앞에 시인 대신 붙인 기획자라는 타이틀이 문제였다, 시인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시인과 이만저만한 관계를 맺은 이들은 차마 글을 쓰지 못하겠노라며 거절을 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선연하다.

실체 없는 신비주의에 기대어 있는 깨달음

정말로 평론가 박철화의 말대로 류 시인은 일종의 신비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대담이나 인터뷰하는 것에 일정 응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게다가 긴 머리에 선글라스 차림으로 다녀 도인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딱 알맞다. 긴 머리에 맨발로 다니는 류 시인이 행색은 대학시절부터 이어졌는지 선배들이 지나가는 류시화 시인(그의 보명은 안재찬이다) 보면 늘 한다는 소리가 “재찬아 머리 깎아”였다고 한다. 2003년 『시와 시학』에서 대학선배인 김종희 씨는 “왜 재찬이는 저렇게 머리는 안 깎고, 땅만 보고 혹은 하늘만 보고 다닐까. 왜 이문제는 수업 시간에 맨날 뒷줄에 앉아서 수업은 안 듣고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서 뭘 적었다 집어넣었다 이럴까” 싶었다고 술회한다.(이문제 시인은 둘도 없는 류 시인의 친구다. 왜 오로지 이문제 시인만큼 소통하냐고 하자 인제 선사의 말인 ‘길에서 검객을 만나거든 너의 칼을 보여주고 그가 시인이거든 너의 시를 보이지 말라’는 구절을 들이었다.) 게다가 이미 대학 시절부터 인간관계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류 시인이 쓴 시를 보여준 사람은 하재봉과 이문제 시인 두 사람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 생활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어서 여행을 제외하고는 작업실을 벗어나 사람을 만나는 일은 일년에 두세 번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시인의 기인적 태도와는 별개로 시인의 문체는 대학시절부터 유명했던지, 국어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는 시인의 〈길 위에서의 생각〉이란 시가 당시 경희대학 문과대학 곳곳에 붙어 있다고도 했다. 나는 류 시인의 언뜻 폐쇄적이고도 도인적인 습성이 상처에서 나왔으리라 지레 짐작했었다. 1990년대 초 시운동을 하던 그는 이념시의 와중에서 혼자 신비주의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해서 평론가 채광석에 의해 외계인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 후로 10여 년 간 절필했다.

어쨌거나 그에 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두 권의 시집이 모두 백만 부가 넘게 팔렸으니 독자로부터는 열광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단이나 평론계로부터는 '영리한 글쟁이'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체 한 사람의 시인이 이렇게까지 다른 게 무언가 싶어 류 시인이 시간차를 두고 펴낸 두 권의 인도 여행기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과 『지구별 여행자』까지 내친 김에 읽었다. 마침 『시사저널』의 안은주 기자가 1년 동안 인도에 살고 온 경험을 써낸 『인도에는 왜 갔어』를 막 읽었던 터라 한국인으로서 인도란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였다.

안은주 기자는 인도에 살며 인도의 현재보다는 인도의 미래를 보고 온 듯했다. 인도의 현재란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하는 나라며, 아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지만 아는 사람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는 나라다. 경찰서 등의 관공서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겨우 한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느려터진 나라라 성질 급한 한국인들이 가면 정말 도둑을 만나다. 가장 지긋지긋한 것은 인도의 기차여행이다. 수시로 이뤄지는 연착도 문제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슬리퍼 칸은 감히 앓는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다. 게다가 표를 사지 않고 몰려드는 인도인에다가 잠깐만 한 눈 팔면 신발이고 배낭이고 모조리 훔쳐가는 통에 이놈의 나라는 잠시도 마음을 못 놓는다며 화를 머리끝까지 내기도 한다.

류 시인의 두 권의 인도 여행기에도 역시 터무니없는 인도인들이 수시로 등장한다. 근처에 자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종종 비상 정지 케이블을 잡아당겨 기차를 세우는 인도인의 기관사들, 열차를 몰다 도중에 친구와 저녁을 먹기 위해 다섯 시간이나 연착하는 기차. 열차 칸을 돌며 구걸하는 사람들, 화장실까지 들어찬 사람



류시화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래된미래, 2005

때문에 소변조차 볼 수 없는 상황, 류 시인도 믿을 수 없이 절망적인 것이 인도의 기차라고 말한다.

한국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도의 현실이 등장하긴 하지만 류 시인의 산문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것이 류 시인의 몫이다. 산문집에 등장하는 인도인들은 물건값을 깎는 시인에게 “그렇게 물건값을 깎으니까 넌 행복하냐”고 묻는다. 전생에 타지마할을 만든 사자 한 왕이었다는 사람이 나타나 “사랑은 불멸하다”고 이야기한다. 식당에 들어가 주문을 하기 위해 베지터를 브리야니는 뭐고 베지터를 플라오는 뭐냐고 물으면 “둘 다 먹어 보시오,

류 시인이 낸 번역서와 시와 수필과 그리고 기획한 책들이 모두 한 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초월적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건 역시 '시'인 듯하다. 그의 말대로 '시'란 기적의 치유제는 아닐지 몰라도 영혼의 가장 낮은 곳에 닿을 수 있으니까.

그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알게 될 테니까. 지식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인도가 끄적하기는 커녕 산문집을 읽고 왜 사람들이 인도에 가고 싶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류 시인이 만난 인도는 지저분하고 가난한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건 분명하지만 때로 선문답을 해대는 탁발승과 만나는 일이나 거리의 노점상들과 겪는 에피소드는 일상과는 다른 인도의 아우라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매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그 터무니없음에 비실비실 웃음도 난다. 겐지즈 강가의 문둥이로부터, 무임승차한 탁발승으로부터 듣는 말들은 깨달은 자의 어록 같기도 하다.(류 시인은 인도 여행 초창기에는 우연히 만난 깨달은 자들의 말을 적기 위해 수첩을 들고 다녔다고 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정체가 때때로 말장난 같아 보인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책장을 덮고 나면 사그라지는 모호함 역시 책 안에 있었다. 그가 늘 듣는 지적대로 그의 산문집이 획득한 깨달음은 실체 없는 신비주의와 초월감에 기대어 있다.

초월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시

그는 15년도 더 전부터 끊임 없이 물적 욕망 혹은 현재적 욕구 대신 반대편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 그의 관심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다.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 말하자면 인도, 네팔, 티베트 같은 곳이다. 현실을 변혁하려는 열망 혹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들끓은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든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그는 먼 여행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그는 “현실에서 느끼는 낯설음,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조차 갖는 이방인 같은 느낌들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그 대신 오히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

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례적으로 류 시인은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서 자신에게 시란 무엇인가에 관한 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열 살 때 학교에 부임한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처음 쓴 시가 '장원'에 뽑히며 존재를 압도하는 시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인에게 시란 영혼의 목소리다. 시란 삶을 멈추고 듣는 것이며 그래서 듣는 자 역시 영혼으로 말하게 하며 그때 시는 상처를 치유하고 깨달음을 주는 치유의 힘을 갖는다. 류 시인이 말하는 깨달음이란 틱낫한 스님의 말로 하면 '오늘을 사는 것'이고 정현종 시인의 말대로 하면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이며, 알프레드 디 수자의 말대로 하자면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인 바로 그런 깨달음이다.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포기나 망각이 아닌 초월을 권유하는 것이다. 이쯤해서 나는 류 시인이 낸 번역서와 시와 수필과 그리고 기획한 책들이 모두 한 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초월적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건 역시 시라는 방식인 듯하다. 그의 말대로 시란 기적의 치유제는 아닐지 몰라도 영혼의 가장 낮은 곳에 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거라면 나 역시 진작에 아는 것이라고 방심한 순간 나는 마지막에 시인이 숨겨놓은 메리 올리버의 <기러기>란 시를 읽고 가슴이 턱하니 막히고 말았다.

당신이 꼭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회를 하며 무릎으로 기어 사막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당신 육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동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라.

— 메리 올리버의 <기러기> 중에서 